

문화코드로 읽는 화장실 삼국지



이왕기/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KOREA

JAPAN

CHINA

일본의 주택이 중국에 비해 개방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내외에 문이 많고,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후에 기가 막히게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일본의 건축적 특징 중에는 개인시설보다 공중시설에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본문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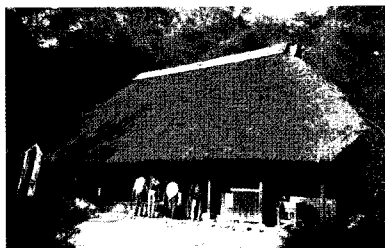
적응성의 귀재 일본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 주택의 특징은 외관의 폐쇄성이 그리 강하지 않고 내부공간의 개방성도 외관과 극단적으로 대비될 정도는 아니다. 일본은 한반도나 중국대륙 보다는 고온 다습한 기후조건을 지니고 있다. 혹독한 겨울추위 보다는 습기가 많은 끈적끈적한 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집짓기를 하고 있다. 그 방법은 문을 크게 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함으로써 고온 다습한 기후조건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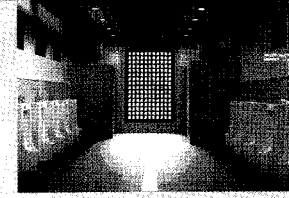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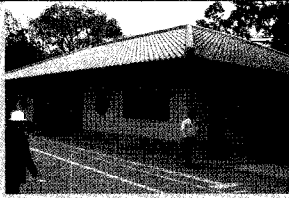
여기에 지진이라는 독특한 지질조건은 중국과 같이 횡력에 약한 벽돌을 주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주택의 주재료는 목재이다. 목재가 지닌 이미지는 부드럽고 친근하며 벽돌에 비해 개방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의 주택이 중국에 비해 개방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내외에 문이 많고,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후에 기가 막히게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일본의 건축적 특징 중에는 개인시설보다 공중시설에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일본의 개인주택이 한국의 주택에 비해 협소하다. 그러나 함께 쓰는 건축물은 크거나 많거나 깨끗하다는 것이다. 궁전이나 사찰의 규모를 보면 한국의 그것에 비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봉건시대 일반 백성들은 권력을 잡는 지배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웠던 격변의 일본 역사는 자신보다는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국민성이 길들여졌고, 그 결과 건축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城)이나 절은 엄청나게 크게 만들기도 한다. 장군이 천황을 1년에 한번 알현하는 처소 이조성(二條城)은 전체 면적이 9만여 평에 건물 면적은 2천700여 평이다. 몇 차례 화재 후 1709년에 재건된 동대사 대불전의 높이가 47m로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이다. 불전 안에 있는 불상 콧구멍 크기는 성인 한사람이 누워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다. 개인주택은 보잘 것 없을 정도로 협소한 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만드는 것이 일본의 국민성이다. 내 집을 크게 하거나 치장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하는 일이다.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생활 습성이 오랜 기간동안 일본인들에게 몸에 배어 내려오면서 일본



▲ 일본민가의 화장실



동대사의 입구와 동대사 내의 화장실

KOREA

JAPAN

CHINA

특유의 집단주의가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단주의의 극치는 일본 단체관광객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인들은 한편으로 아주 작은 것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무엇이든 작게 만들거나 작은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재주를 지니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의 도시에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두었다. 그 근처에는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역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주의, 그리고 작은 것에 집착할 정도로 관심을 지닌 축소지향적 국민성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의 고온 다습한 기후특성상 음식이든 신체든 건축이든 청결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기 쉽다. 이런 기후 때문에 어려서부터 청결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지금은 수세식화장실이 보편화 되어있지만 저장식 화장실은 높은 온도로 인해 쉽게 부패하고 벌레가 생기기 십상이다.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일본인의 청결 습성은 여기서도 발휘되고 있다. 에도시대 화장실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습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청결습성을 생활 속에 규격화 시켰다. 일본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더러운 놈'은 '나쁜 놈'보다도 더 모욕적인 욕이다. 청결이 봄에 뱀 탓이다. 일본의 국민성 중에는 작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거의 모든 일을 작고,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옛날 일본사람들은 건축물을 만들 때 건축유형에 따라 기동크기, 기동간격, 서까래 크기, 간격 등 몇 가지 규격을 정하여 모든 건축물은 이 규격에 맞도록 정해놓았는데 그것을 기와리(木割り)라고 한다.

배설에도 예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도 '도(道)'라고 하는 자로 규격화하였다. 그들의 국민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설하는

것도 결국 법식이 있는 하나의 '예절'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듯 일본인들은 규격과 형식을 좋아한다. 공중화장실을 규격화하듯이 많이 만들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성은 이러한 기후조건과 집단주의, 그리고 작은 것에 관심을 지닌 국민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시콜콜 드러내 놓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화장실도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다. 일본 텔레비전을 보면 "뭘 저런걸 다 방송하나?" 싶을 정도로 일상사에서 하찮은 일까지 까발려 놓는다. 이런 국민성이 화장실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화장실'이라는 단독주제로 논문이나 단행본을 발간하는 일은 보기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화장실에 관한 단행본은 물론이거니와 학위논문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민족성을 이해할 것도 같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타니자끼준이찌로(谷崎潤一郎)가 '음예예찬(陰禮禮讚)'이라는 책에서 화장실 공간을 표현한 내용은 압권이다. "茶室도 좋긴 하지만 일본의 변소는 참으로 정신이 편안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것들은 반드시 안채에서 떨어져 신록의 냄새나 이끼 냄새가 나는 듯한 정원수 풀뒤에 마련되어 있고 복도를 통해 가는 것인데, 그 어둑어둑한 광선 속에 웅크리고 앉아 희미하게 빛나는 장지의 반사를 받으면서 명상에 잠기고 또는 창밖 정원의 경치를 바라보는 기분은 무어라 말할 수 없다" 더러운 화장실을 이처럼 예찬한 것은 아마 일본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타니자끼는 온기가 따뜻하게 나오고 타일을 정갈하게 붙인 서양식 화장실에 비해 나무로 만들어 경관이 보이는 재래식 화장실을 더 좋아했다. 이처럼 좀 거론하기가 꺼려지는 주제도 일본인들은 기가 막히게 재생산해 낸다. 타니자끼의 이 글을 읽고있으면 그 화장실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화장실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실생활에 접목시킨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차피 생



한국의 너와집

KOREAN

JAPAN

CHINA

리현상을 감출 수 없을 바에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 낯지 않을까 하는 일본인들의 생각의 발로가 아닐까? 일본의 전통적인 화장실은 문 쪽을 향해 앉는 중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안쪽을 향하여 앉는다. 처음 문쪽을 향해 앉는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의아해 했다는 일본인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이유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인 유학이 주자학이 아니라 양명학(陽明學)이었기 때문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즉 주자학 보다 예를 덜 중시했던 양명학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검증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본의 화장실 문화는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적응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양에서 누구보다 일찍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적응시킨 일본인들의 민족성은 화장실 문화에서도 잘 표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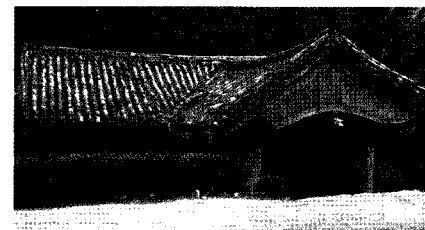
철저히 자연 순화적인 한국

한국의 주택에서 외부의 폐쇄성은 중국의 그것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이지만 일본의 그것에 비해서는 폐쇄성이 강하다. 외부의 폐쇄와 내부의 개방을 대비해 볼 때 중국의 그것처럼 극단적으로 변화되거나 일본의 그것처럼 대비성(對比性)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중간쯤 되는 것 같다. 혹독한 겨울이 있는가 하면 고온다습한 여름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사용재료에서 중국처럼 벽돌을 쓰지는 않지만 한국은 흙벽과 온돌을 만들어 추위에 대비하고, 개방된 마루와 커다란 창호를 둬으로써 고온다습한 여름 기후에 대비했던 것이다. 적당히 목재를 혼용함으로써 부드러운 느낌과 개방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네 화장실은 중국처럼 무시한 것처럼 하지도 않고, 일본처럼 집 안에 들여놓은 것도 아닌 적당히 떨어뜨려 놓고 있다. 그 형태는 폐쇄적이기도, 개방적이기도 않은 형태이다.

벽은 있으나 문을 달지 않아 기적을 느낄 수 있고, 살창을 두어 바람이 잘 소통되도록 하였다.

한국의 화장실은 집안에 들여놓은 일본과는 달리 철저히 집밖에 둔다. 꼭 필요하다면 휴대용 화장실 요강을 사용한다. 화장실이 반드시 밖에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밖에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과 가까이 뚫으로써 비료로 사용하기 편리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집 안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궁전과 첩첩산중에 자리잡고 있는 너와집과 같은 외딴 집이다. 궁전은 따로 볼 수 없는 집 구조 때문이고, 너와집은 맹수 피해 때문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화장실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거름생산형이고, 또 하나는 사료 활용형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농경민족이 낳은 형태적 특징이라 하겠다.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중국의 영향을 받든, 이 땅에서 창조되었든 우리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니 우리 것이 되었다. 비료 생산형은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地心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름이 가장 좋고 단시간에 좋은 거름을 생산하는 것으로 삭힌 인분이 최고이다.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재를 쉼거나 풀을 뜯어 섞어주면 냄새도 제거하고 삭히기도 좋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완벽한 재활용이다. 따라서 인분을 모퉁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사료활용형은 주로 돼지에게 인분을 먹이는 방법이다. 화장실을 누각처럼 높여 만들고 그 아래칸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불일 보는 즉시 사료로 변하는 것이



▲ 지리산 선암사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아름다움이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에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보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마음, 자연과 잘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마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화장실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중에서>

KOREAN

JAPAN

CHINA

다. 이처럼 간편한 일이 어디 있는가. 다른 곳에서 볼 일을 보는 것은 사료를 함부로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전통문화이고 생활민속이다. 어쩌면 동양 3국 중에서도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재활용적인 화장실 문화는 한국인지도 모른다.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의식 때문에 외면해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안에 들여놓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려주는 순박한 생각으로 취급했던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화장실 문화였던 것이다.

맺음말

냄새나고, 지저분한 화장실은 산업사회로 인해 도시화되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다. 말하자면 자원이 오물로 전락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미처 함께 변화시키지 못했던 공공 시설 중에는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도시화 현상은 도시기반을 만드는 속도에 비해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에 늘 도시기반 치다꺼리에 바빴다. 공중화장실도 도시기반이었지만 다른 기반시설에 비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시행착오였다. 자원이 오물로 변했지만 오물처리에 재빨리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1985년에야 비로소 화장실 협회가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협회에서는 매년 전국의 좋은 화장실 10

개를 선정하여 널리 홍보하기도하고 공중화장실의 질적 향상과 문화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 화장실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화

장실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의 집단주의에 힘입어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일본의 현대적인 공중화장실 개조사업은 건축가들에게는 자신의 조형감각을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되기도 했다. 늦기는 했지만 한국에서도 1998년 한국관광공사에서 화장실문화운동을 시작하였고, 1999년 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곧 개최될 월드컵축구대회는 시민문화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화장실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게되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래 화장실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서양사람들은 이와 같이 깨끗하게 단장된 화장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서 역사적으로 독특한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리가 없다. '아름다운 화장실'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아름다움이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에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보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마음, 자연과 잘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마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화장실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이 많이 만들어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한국의 관광1번지 강원도는 이 문화운동의 중심에 서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이 너무 서양적 개념으로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점점 사라져 가는 우리만의 뒷간 민속문화, 오물이기 이전에 자원으로 생각했던 뒷간문화, 자연순환적이고, 자연과 함께 하는 '뒷간문화'를 관광1번지 강원도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지리산 선암사 화장실